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3년 7월 5일(수) 15:00	매 수	4매
	보도일시	배포시 부터	사 진	6장
	담당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홍성우 부연구위원 ☎044-414-1150 ✉swhong@kiep.go.kr		
	배포부서	대외협력팀 ☎ 044-414-1175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및 룰라 3.0 정부 시대, 경제·비즈니스 협력 비전 모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개최...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의 의의 평가 및 향후 비전 제시
- 룰라대통령 3기 정부 시기의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7월 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세 번째 집권한 룰라대통령 시기에 양국 간 경제 및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홍중 KIEP 원장,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 미리암 레이땅 주한브라질대사관 차석대사 등을 포함해 양국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경제/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김홍중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은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 6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룰라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해”

라고 강조하면서 “룰라 대통령 3기 정부가 브라질 경제의 재건과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위상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그리고 이 포럼이 양국 간 협력기회를 발굴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비즈니스포럼 12주년, 3기 룰라정부 출범 등 뜻깊은 해에 브라질만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종합적 성격의 유일한 국제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시장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은 화상을 통한 환영사에서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양국 관계를 황금기로 이끌었던 룰라 정부 재등장이라는 환경에서 양국은 새로운 협력방향 모색과 발전 모멘텀을 마련할 적기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정부는 기존의 양국 간 통상·투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우주항공과 같은 신산업·첨단기술 분야는 물론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굴해 나가는데 적극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부에서는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의 의의와 향후 비전**”을 주제로 이승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월라시 모레이라(Uallace Moreira Lima) 브라질 개발통상부 차관보와 권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양국의 입장에서 경제협력 성과와 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월라시 차관보는 영상 발표에서 룰라 새 정부의 ‘브라질 재건’을 위한 ‘재산업화 전략’과 △농업(식량안보 확보) △보건산업(국민의 생명권 보호) △인프라(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산업의 디지털 혁신(4차 산업혁명에의 적응)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중점 분야를 소개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인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월라시 차관보는 이번 포럼을 통해 두 나라가 함께 경제성장을 이뤄 나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산업, 식량, 사회 불평등 극복 등의 측면에서 각국의 주권 수호에도 힘을 보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권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태동기부터 전환기에 이르는 60여 년간 원자재와 수출·투자 시장 확보라는 2단계 과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경제안보 동반자, 고부가가치산업화 동반자 등 3대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MERCOSUR TA 협상 조속 타결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재순 브라질 한인 교수협회 자문위원이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브라질 이민정책은 세계 이민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동시에 브라질 사회 및 언론도 한인동포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미래 60년을 위해 한인의 전문분야 진출 확대 및 정치권 진입, 양국 간 경제·사회·문화 협력 심화 등을 통한 더욱 견고한 한인 커뮤니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부는 “**룰라 3.0 시대 한·브라질 경제협력**” 주제로 홍성우 KIEP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로 룰라 3기 정부 출범 이후의 브라질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정책을 통해 협력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유망협력 분야 발굴 및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공유했다.

“**룰라 3기 정부 출범이후 브라질의 경제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미숙 KIEP 전문연구원은 “브라질 경제는 2010년 이후 농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제조업 생산이 정체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룰라 3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레 까르발류(André R. Carvalho) 상파울루연방대학교 교수는 “**룰라 3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협력 기회**”라는 주제 발표에서, “룰라 정부는 성장, 분배, 재정, 인프라, 산업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과 바이오,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항공우주,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분야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브라질과 한국이 국제경쟁력과 수출역량 등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알메이다 Una Partners 컨설팅 대표는 “브라질 경제는 비록 정치 불안, 고물가, 재정적자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향후 성장, 고용, 물가, 환율, 재정 등 거시 경제적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투자유망부문으로 최근 제도 및 규제 기반이 개선된 신기술 부문인 인프라, 재생에너지, 핀테크, 프랜차이즈 등을 제안했다.

◆붙임1.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프로그램(안)

◆붙임2.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행사 사진

/끝/

붙임 1 프로그램(안)

프로그램

13:30 - 14:00 사전 등록

14:00 - 14:30 개회식

- 개회사 | 김흥종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환영사 | 편무원 부회장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최준호 심의관 (외교부 중남미국)
- 축사 | 미리암 레이땅 차석대사 (주한 브라질대사관)

14:30 - 15:50 제1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의 의의와 향후 비전

사회 | 이승용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기조발표 브라질-한국 경제협력 성과와 비전
월라시 모레이라 리마 차관보 (브라질 개발상공부)
- 발표 1 한국-브라질 경제협력 성과와 비전
권기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표 2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의 의의와 전망
김재순 자문위원 (브라질 한인 교수협회)

15:50 - 16:10 휴식 (Coffee Break)

16:10 - 18:00 제2부. 룰라 3.0 시대 한·브라질 경제협력

사회 | 홍성우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표 1 룰라 3기 정부 출범이후 브라질의 경제 현황과 전망
박미숙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표 2 룰라 3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협력 기회
안드레 R. 까르발류 교수 (상파울루연방대학)
- 발표 3 룰라 3기 정부 시기 한·브라질 유망협력 분야 및 협력 방안
박민경 전문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발표 4 브라질 투자 전망 및 비즈니스 기회
다니엘 K. 알메이다 대표 (Una Partners 컨설팅)

18:00 폐회

※상기 일정 및 연사는 당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행사 사진
------	-------

[사진1] 단체 사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7월 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아랫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김홍중 KIEP 원장,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미리암 레이땅 주한브라질대사관 차석대사.

[사진2] 김홍중 KIEP 원장 개회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7월 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김홍중 KIEP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3]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환영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7월 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4]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 환영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7월 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이 화상을 통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5] 미리암 레이땅 주한브라질대사관 차석대사 축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7월 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미리암 레이땅 주한브라질대사관 차석대사가 축하를 하고 있다.

[사진6] 포럼 현장 사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7월 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